◈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조선근

제2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

맑은 영혼에서 울려나는 천상의 찬양을 위해 성악 이론과 실습 중심의 알찬 프로그램 준비

본교회 성도들도 등록 수강 가능
2월 3일부터 6일까지 본당 및 나사렛홀

찬양위원회는 지난 여름에 이어 금번 2월 3일부터 6일까지 제2회 전국찬양대 지도자강습회를 실시한다. 개강 당일 오후부터 폐강일 오전까지 알찬 강의와 실습들로 진행되는 금번 강습회를 위해서 본 교회 지휘, 반주자 대부분과 몇 솔로이스트들이 강사로 헌신한다. 그리고 음영실 및 식당 직원들, 10여명의 도우미들이 땀흘려 수고할 각오로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강습회의 모든 순서 및 참가자들의 숙식은 교회 안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성도들은 이들을 반갑게 맞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통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모든 준비하는 실무자들과 강사들, 수강생들 위에 성령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셔서, 이들이 맑은 영혼에서 울려나는 천상의 찬양을 위해 힘있게 가르치고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한편, 금번 강습회의 참가 예정자들을 보면, 연령별로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또 지역적으로도 제주도에서 경북, 충남, 서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충남 천안 강변교회 같은 교회는 찬양대원 6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하기도 했다.

금번 강습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복식호흡과 발성, 성악문헌, 음악통론, 시창, 화성악, 악식론, 찬송가학, 교회음악사 및 각 과목에 따른 실기와 중창경연대회 그리고 부흥회 및 말씀특강 등이다.

도서장학회에서 알립니다

오늘부터 장학금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교육국으로 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수련회
대학부 2월 2-5일, 신혼가정부 2월 6-7일

대학부는 2월 2일에서 5일까지 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주제로, 영적 대각성과 헌신을 초점으로 진행될 금번 수련회를 통해 젊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백성과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요청된다.

한편 신혼가정부 역시 2월 6일부터 7일까지 교육관 201호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금번 수련회는 '부부와 경제생활' 이라는 대단히 실제적인 주제로 진행되는데, 결혼과 더불어 타협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적지 않은 사례에 비추어 신혼가정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는 모체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관심을 기울여 기도해야 하겠다.

4, 17교구 농어촌 전도사역 다녀와
축호전도와 부흥집회로 기틀다져

4교구와 17교구는 각각 27-28일, 25-28일 사이에 동계 농어촌 전도사역을 다녀왔다. 강원도 원주로 떠난 4교구 전도대는 지난 여름에 방문했던 가곡교회에서 축호전도와 부흥집회 등을 실시하고 알찬 결실을 맺고 돌아왔다. 지난 여름에 방문했던 충북 제천의 금성장로교회로 전도사역을 다녀온 17교구 전도대 역시 상주인원 17명, 연인원 60여명의 교구식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성경학교와 축호전도, 70세 이상 노인 70여명을 대상으로한 영정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여 온 마을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 금성장로교회의 정원길 목사는 교회 설립 이래 겨울성경학교를 실시하기는 처음일 뿐 아니라, 매일 저녁 130여명씩 모이는 집회는 생전 처음이라며 큰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정전도회 영성훈련
2월 5일 밤 기도원에서

교정전도회는 2월 5일 금요집회 직후부터 6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전 임역원, 전도팀, 교정전도회 중창단, 그리고 차량봉사자 등 40여명의 교회일꾼들이 참석하는 영성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1999년 교회주요행사 일정

1999년도 각 위원회별 주요행사 일정이 아래와 같이 정돈되었다. 성도들은 이 일정을 수시로 참조하여 교회의 주요 행사들을 위해 성실히 기도함으로 전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성령의 때는 줄로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세워져 가도록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까운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일들은 미리 준비하여 모든 일들이 전 교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예배위원회

행사명	날짜	협력부서
1. 신년예배	1/1	당회
2. 종려주일	3/28	
3. 고난주간	3/29-4/2	당회
4. 부활절	4/4	찬양위
5. 어린이주일	5/2	교육위 · 찬양위
6. 어버이주일	5/9	교육위 · 찬양위
7. 성령강림주일	5/23	
8. 맥추감사절	7/4	교육위 · 찬양위
9. 교회설립주일	9/5	당회
10. 종교개혁주일	10/31	
11. 추수감사절	11/21	교육위 · 찬양위
12. 성탄절	12/25	교육위 · 찬양위
13. 세례 문답 및 교육	학수당 1, 2주일	교구위 · 새가족부
14. 학습세례식	2/28, 4/25, 6/27, 8/22, 10/24, 12/26	당회
15. 성찬식	1/3, 3/7, 5/2, 7/4, 9/5, 11/7	당회

찬양위원회

1. 절기음악예배		
부활절	4/4	예배위
맥추감사절	7/4	예배위
교회설립주일	9/5	예배위
추수감사절	11/21	예배위
성탄절	12/25	예배위
2. 충현 찬양의 밤	11/19	
3. 교회학교 지휘자 · 반주자 훈련	3/9	교육위
4. 전국찬양대지도자강습회	2/3~6, 8/	

교육위원회

1. 계절학교 및 수련회	1/~3/, 7/~8/	기도원
2. 교회학교 성탄 찬양제	12/	행정위

전도위원회

1. 전도위원 영성훈련	1/29~30	
2. 학원전도회 수련회	1/, 3/	
3. 농어촌전도대 파송	1/~12/	교구위 · 교육위
4. 농어촌교회 지원	1/~12/	
5. 경찰전도집회	1/~12/	
6. 교도소전도집회	1/~12/	
7. 소년원겨울성경학교	1/, 12/	
8. 전중집회 및 세례식	1/~12/	
9. 농어촌교역자 초청 집회	5/	
10. 국문후보생교육	5/	
11. 군목세미나	6/	

선교위원회

1. 선교주일 및 헌신예배	1/24	교육위 · 교구위
2. 선교훈련 훈련 및 세미나	2/25, 4/24, 11/20	
3. 외신부 하기수련회	7/29~8/1	
4. 단기선교 파송	1/, 7/, 8/, 12/	교육위 · 교구위
5. 외신부 학생 교육	매주	
6. 외신부 영성훈련	매월 마지막 주일	
7. 의료선교	7/~8/	전도위

봉사위원회

1. 절기구제	10/, 12/	교구위
2. 특별구제	1/~12/	교구위
3. 차량봉사	1/~12/	행정위
4. 일반봉사	1/~12/	행정위
5. 재해봉사	1/~12/	행정위

인사위원회

1.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투표	3/28	교구위
2. 장로 · 안수집사 취임및 은퇴	10/	행정위
3. 제직및 교구임원 선출 및 임명	11/~12/	교구위
4. 위원회 봉사자 선출 및 임명	11/~12/	각 위원회
5. 퇴임 및 근속자 시상	12/26	행정위

기획위원회

1. 교회요람 발간	2/	교구위
2. 제직사진첩 발간	2/	교구위
3. 교회규정집 제작	2/	각 위원회
4. 목사 · 장로 기도회	3/1	당회서기
5. 장로(원로, 시무) 수련회	6/, 10/	당회서기
6. 교역자 수련회	4/, 10/	당회
7. 주간충현 · 주보 제작	매주	
8. 영문 주간충현 발간	격주	
9. 충현의 만나 제작	매월	교역자

교구위원회

1. 경로심방	1/~2/	
2. 지역모임	1/	
3. 교구간사 수련회	3/	
4. 교구영성훈련	3/~6, 9/~11(화,목)	행정위 · 교육훈련원
5. 교구찬양	4/~6/	
6. 구역장훈련	3/~6, 9/~11(매주)	
7. 대심방	3/~6, 9/~11	

건축위원회

1. 제2교육관 증축 착공	3/	행정위
2. 복지관 증축 완공예정	6/	행정위

감사위원회

1. 회계실무교육	1/17	각 위원회
2. 98년도 결산서류 감사	1/~2/	각 위원회
3. 행정감사 및 사면감사	3/~6/	각 위원회
4. 계절학교 및 수련회 결산감사	9/~10/	각 위원회
5. 상하반기 정기감사	7/~8/, 11/~12/	각 위원회

교육훈련원

1. 성경통신강좌	매주일	교구위
2. 정지기훈련	1/13-14	교구위
3. 주간성경공부		교구위
전반기	2/28~6/19	
후반기	8/29~12/4	
4. 찬양대원양성부		찬양위
제20기(전반기)	2/28~5/30	
제21기(후반기)	8/29~11/28	
5. 교사양성부		교육위
제50기(전반기)	2/28~6/27	
제51기(후반기)	8/29~12/26	
6. 교사연장교육		교육위
전반기	2/28~6/19	
후반기	8/29~12/4	
7. 교사단기수련회	5/15~16	교육위
8. 직분자교육		교구위
남성구역장반		
전반기	2/28~6/16	
후반기	8/29~12/1	
부녀역장 · 구역장 · 전불반		
전반기	2/28~6/16	
후반기	8/29~12/1	
안수집사반		
전반기	2/28~6/19	
후반기	8/29~12/1	
9. 피택자교육	4/1~9/16	인사위
피택장로, 피택안수집사, 피택권사		
10. 서리집사 · 전불 후보자 교육	11/18	교구위
11. 목회자세미나		기획위
1차	2/22~24	
2차	8/23~25	
12. 전도훈련		전도위 주관
1차	3/3~4/14	
2차	5/12~6/30	
3차	9/8~10/27	
13. 선교훈련	3/6~6/19	선교위 주관
	9/4~12/11	

도서장학회

1. 상반기 장학생 선발	2/20	교육위
2. 상반기 장학금 지급	3/14	교육위
3. 전역장학생 선발	6/	교육위
4. 하반기 장학생 선발	8/25	교육위
5. 하반기 장학금 지급	9/12	교육위

충현기도원

1. 계절학교 및 수련회	2/~, 7/~8/	교육위
2. 교구영성훈련	3/~6/, 9/~11/	교구위 · 교육훈련원
3. 화요기도집회	매주 화	행정위
4. 금요철야집회	매주 금	행정위

각종 회의

1. 공동의회		
제1차	1/3	당회서기
제2차	2/28	
제3차	3/28	
2. 정기당회	매월	당회서기
3. 위원장 협의회	매주	당회장
4. 위원회	매월	위원장
5. 제직회	매3개월	제직회서기
6. 특별제직회	12/26	제직회서기
7. 총회	11/-12/	위원장, 회장
각 위원회, 각 부서		

앗수르 왕의 침략과 히스기야 왕에 대한 협박

(이사야 36:1-22)

"악마의 선전은 옳은 말을 하다가 점차로 거짓말을 섞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런 술수에 넘어 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김 창 인 목사

1. 앗수르 군이 예루살렘에 침략하여 협박한 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14년에 …"(1절)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워 섬기면서 의인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여지없이 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25세라는 젊은 나이로 왕위에 등극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선한 왕이었던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정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서 부서 버렸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은 깨끗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쇠하여 가던 유다가 점점 회복이 되어 히스기야 왕 14년이 되는 해에는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도 적어지고 온 백성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생활면에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때 북방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 장군과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남방 유다마저 삼켜 버리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유다의 성읍 44개를 점령했고 애굽이 유다를 돕지 못하도록 유다와 애굽의 통로인 라기스를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앗수르 군대의 작전은 참으로 탁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유다는 독 안에 든 쥐처럼 앗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갇혀 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살아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배워야 할 교훈은 개인적으로 일이 잘 되어 가는 그때가 사실은 위태한 때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곳에서 악마가 틈을 탑니다. 히스기야 왕이 망해 가는 나라를 회복시켜 잘 되어 가는데 이대로만 한 10년을 더 발전하면 세계에서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에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2.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하였습니까

(1) 앗수르 왕 산헤립이 라기스를 정복하여 유다와 애굽의 통로를 끊었습니다.

"…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1-2절)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2) 랍사게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수도구 곁에 섰습니다

"…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2절)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공갈을 쳤다고 기록하지 않고 세탁업을 하는 수도구가 있는 큰 길에 와서 섰다고 특별히 장소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내포된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죄를 떠나라고 권면할 때에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거절해 버린 곳이 바로 수도구입니다(사 7:3-12).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종을 물리쳐 버렸더니 그 장소에 원수가 와서 자리를 잡고 예루살렘을 향해 공갈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종을 물리쳐 버리면 그 자리가 원수에게 위협을 당하는 저주의 장소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3. 랍사게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습니까

적군의 장수 랍사게가 세탁업자의 수도구 곁에 와서 공갈을 퍼 부으려고 하는 곳에 히스기야 왕은 신하 세 사람을 선정하여 협상 대표로 보내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궁내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4절)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못되고 더러운 말을 하여도 신사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랍사게가 아무리 공갈을 쳐도 히스기야 왕은 그에게 정식 대표를 보내었습니다. 궁내대신을 비롯하여 서기관과 사관을 정식 대표로 보내어 적군과 회담을 하도록 한 것처럼 예수믿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무리 못된 자라고 하여도 자신은 인격적인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앗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유다의 사신에게 협박 공갈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였습니다. "…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4절)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랍사게는 앗수르의 일개 장군입니다. 랍사게 자신이 큰 나라의 장군이지만 작은 나라의 왕을 찾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고하라'고 하였으니 오만불손한 말투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약한 자라고 너무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약자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싸움을 거는 짓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하고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네 가지 내용으로 협박하였습니다. 그 중에 처음 두 가지 말은 옳은 말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신자에게 협박 공갈할 때에 틀린 말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하다가 신자가 안심할 때에 나쁜 말을 섞어서 넘어뜨립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말만 한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처음에 들어 보고는 옳으니까 그 다음의 말도 옳은 줄 알고 속기 쉽습니다. 이렇게 간교한 놈이 마귀입니다.

적장 랍사게가 산헤립 왕이 전한 말로 공갈을 치는데 두 가지 말은 옳은 말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거짓말입니다. 첫번째 옳은 말은 자신은 믿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4-5절). 두번째 옳은 말은 애굽은 갈대지팡이라는 말입니다(6절). 첫번째 거짓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 버렸다고 하였습니다(7절). 두번째 거짓말은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10절).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신자를 유혹할 때에 거짓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나와서 옳은 말을 한참 하다가 슬쩍 나쁜 말로 꼬리를 돌려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고약한 방법으로 협박 공갈을 합니다.

4. 랍사게의 협박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협박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동요되지 않았으니 아주 훌륭한 처신이었습니다.

(1) 훌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11절)

정식회담을 신사적으로 하자고 다시 청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억울한 말을 들으면 분통이 터져서 같이 욕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사적으로 회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랍사게 장군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고 빨리 나와서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히 살고 더 잘 살 수 있다. 만일 너희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너희와 너희 자손이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라고 선동하였습니다(12-20절).

(2)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21절)

이 말씀이 귀합니다. 적군이 큰 세력을 가지고 성 밖에 와서 협박과 공갈을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속아서 다 죽지 말고 한 사람 두 사람 빨리 뛰어 나와 항복을 하라고 충동질을 했으나 신하들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 중에서도 대답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원수가 자꾸 협박 공갈로 선전을 하면서 야단을 치지만 예루살렘의 시민은 한 사람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그 말에 대답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때에 힐기야의 아들 궁내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22절)

랍사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그 말을 자기네 통치자인 히스기야 왕에게 옷을 찢으면서 보고하였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각오와 결심을 한다는 뜻입니다.

5.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앗수르 왕이 쳐들어 온 것처럼 잘 되어 갈 때에 원수가 함정을 파므로 그때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악마의 선전은 옳은 말을 하다가 점차로 거짓말을 섞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없어야 하는데 마귀는 옳은 말을 하다가 살짝 거짓말을 섞어 넣습니다. 이런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셋째로, 원수는 아무리 악한 말을 하여도 신자는 정당한 태도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원수가 무슨 소리를 해도 유다의 사신들이 똑똑히 "아람 방언으로 회담합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 설교

김 성 관 목사

기 쁨

(누가복음 15:10)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진정한 기쁨 찾기

기쁨이란 얼마나 모순된 주제입니까!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원하지만 진정한 기쁨에 대하여는 너무나 무지하니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미 많은 기쁨에 둘러싸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관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쁨을 느끼고 또 얻습니다. 꽃은 온갖 색으로 피어나고, 바람은 여러 곡조로 노래를 하며, 다양한 냄새를 실어와 우리의 코를 간지럽힙니다. 그리고 기기묘묘한 식물과 동물들이 있고, 대지의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하는 태양도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누리는 세상적 기쁨들과 차별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 곧 하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기쁨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기쁨의 왜곡과 모순

세상적 기쁨은 그 근본부터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심하게 짓밟거나 비꼬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처롭게 보이는 미소를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히틀러는 프랑스에서 건물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 날뛰다니요.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기쁨 안에도 모순이 깃들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대단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이내 곧 이어지는 갖은 병치레와 기저귀 갈아주기, 새벽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떼쓰는 울음, 그리고 계속되는 교육의 문제 등은 결코 기쁨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의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을 갈망하지만, 탄생과 죽음의 불확실한 경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결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불안함을 이기고 찰나적인 기쁨이라도 얻기 위해 농담과 희극과 코미디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그 기쁨의 마지막은 역시 공허와 허무입니다.

세상적 기쁨은 헛된 환상

이 모든 허무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이 모순어린 기쁨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가해졌던 무시무시한 핵 폭격을 기억하십니까? 그 공격은 일본인들에게는 죽음과 공포와 대대로 이어지는 비극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는 열광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모순어린 일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비참함이 산 사람들의 기쁨이 되다니요! 요즘 미국 대통령은 섹스 스캔들로 인해 더 유명해졌습니다. 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정말로 그가 르윈스키와 성 관계를 가졌고 아내를 속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미국의 절대 권력자가 이제는 허리케인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사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과연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그것이 누군가의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동시에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비극이요 아픔입니다. 따라서 세상적 기쁨은 헛될 뿐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예수님을 찾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짧은 인생을 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기쁨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헛된 수고를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기쁨 역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아는 하늘의 기쁨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진정한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천사들은 죄의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파괴된 세계와 그로 인해 계속된 참혹한 인간 역사를 목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과 슬픔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허무에서 허무로 이어지는 인간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저주와 순종의 축복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극악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로 보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처절한 순종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은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신성의 충만함이 나타날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죄 고백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귀에 도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들은 한 정직한 영혼이 하나님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그의 목적을 촉진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기쁨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벗어나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요.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시편 2편 4절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시편 126:1-2)". 이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어둔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진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히 12:2)" 예수님을 받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없는 기쁨은 헛될 뿐 아니라 완전히 감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 있는 기쁨, 곧 한 영혼이 돌아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아는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는 영적인 기쁨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담긴 그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끝없는 원천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고 기뻐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은 주님 위한 기쁨의 봉사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매 주일은 본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주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과 일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쁜 봉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야 말로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한 영혼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은 예수님을 찾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짧은 인생을 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기쁨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헛된 수고를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는 죄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죄인 자신도 진정한 행복에 잠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와 이 땅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

선 교

스리랑카, 인도 단기선교팀 힘있는 출발

스리랑카 단기선교팀과 인도 단기선교팀이 1월 27일(수)과 28일(목)에 각각 현지로 떠났다.

스리랑카팀의 주 사역은 현지에 있는 충현교회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방문해 그들을 신앙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스리랑카의 콜롬보, 캔디, 마드라 등에 흩어져 있는 현지인들을 심방하고 그들을 일대일로 단기간에 집중 양육하며 핵심 리더를 발굴해 장기적으로 자체 교회가 세워졌을 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도팀은 낮에는 주로 캠퍼스 사역에 주력하며 저녁에는 본 교회 출신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뉴델리와 찬디가르에 있는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할 계획이다. 인도팀 역시 이번 사역 기간 중 핵심 리더를 발굴해 향후 인도인들에 의한 자체 교회를 설립, 성장시키도록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스리랑카와 인도 단기선교는 작년 여름에 이어 두번째인데, 이번 사역에서 보이듯 향후 단기선교는 국내외국인선교부 사역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해 동남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를 파견하기 위한 거점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천국일꾼

충현소석장학회를 소개합니다

정 현 민(목사, 도서장학회 지도)

충현소석장학회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천국일꾼을 양성하여 이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하에 충현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신앙이 독실하며 교회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이 타에 모범이 되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천국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1년이후 매년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작년 1998년까지 2,456명의 학생들에게 일반 장학금 및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석장학회는 김창인 목사님의 성역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특별한 의미의 장학회이나, 현재로는 일반 충현장학금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 장학 혜택을 받아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천국일꾼으로 양성되어 국내와 해외 등지에서 이 민족과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충현소석장학생 선발 방법은 매년 초 주간충현을 통해서 수 주에 걸쳐서 공고되며 서류전형, 논술시험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1년에 1-2회에 걸친 영성훈련을 통해서 천국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현 소석 전액 장학생들은 매달 1회씩 노방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읽으며, 매일 새벽 기도와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기도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 민족과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의 장래는 훌륭한 제도나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쉽이나 교육을 통한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의 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헌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현소석장학회에서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심겨지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도 마땅한 직임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꼬마 선교사들의 요람에서 올리는

감 · 사 · 기 · 도

영어교육 초등부 교사들

하나님!
눈을 들어 당신의 크신 권능과 한없는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믿음 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예쁜 아들 딸들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게 시작된 초등부이었지만 그때마다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세워 주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여름, 겨울 성경학교 어린이날 등 많은 행사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행사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직접 인도하시고 봉사의 기쁨으로 듬뿍 주시니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저희 영어교육부 초등부를 인도하심은 오로지 주님의 긍휼이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씨를
뿌리오니, 이 어린이들을
장래의 선교사, 사람낚는
어부들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성령충만하여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율동에 맞춰, 시간이 변경되어 (12시30분 복지관, 지하 1층 가나홀) 배는 고프지만, 선생님, 어린이들, 학부모님들 80여명이 열심히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의 집 방문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씨 힘든 그들의 상처를 보며, 우리에게는 이들을 돌보아야 할 강한 팔과 다리, 머리가 있음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올해는 아이들을 위해 전도사님을 세워 주시고 좋은 말씀과 또 매달 넷째주에 선교에 대한 특강을 예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는 수단에 단기선교를 다녀온 선생님의 놀라운 간증과 선교에의 간절한 소망을 보고, 듣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강 후 퀴즈시간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번쩍번쩍 들며 참여하는 모습,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흡하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셨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호주에서 오신 선생님을 세워 주셨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합심하며 기도하며 동역하겠으니 사용해 주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잉태하는 요람이 되도록 저희 영어교육부를 사용해 주소서.

하나님! 올해에도 씨를 뿌리러 나가오니, 부족하지만 사람낚는 어부들로 키워주세요.

죄인을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저희들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소서. 주님이 맡겨 주시는 귀한 일꾼을 올바로 양육하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 인도함에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수단 단기선교에서 의료 활동하는 선생님

"복음의 씨 뿌리는 자 되기를 열망하며"

오 용 진(대학부, 소석전액장학생)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엉뚱한 "도(道)" 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 강퍅해졌습니다. 말 붙이기가 무섭게 싸늘하게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산도는 정말 귀찮아. 기독교도 별 다를게 없어"라는 식입니다.

요즘같은 시대는 참으로 전도하기 힘든 때인데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 해도 왜 그렇게들 바쁜지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만 비록 전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해도 전도에 대한 열정마저 식어져서는 안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믿음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듯, 기도해줄 어머니 없는 자들의 영혼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먼저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씨뿌리는 단계입니다. 좋은 기회를 찾거나 또는 마련해서 복음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세번째는 물주는 단계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또는 영접하더라도) 그 심겨진 씨앗이 싹이 트고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둬들이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끈질김과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믿음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듯이, 기도해줄 어머니 없는 자들의 영혼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98년이 지나가고 99년이 왔습니다. 99년 마지막 해에는 다른 어떠한 것들과도 상대가 되지 않고 열매중에서도 가장 값진 영혼의 열매를 맺어 맺었으면 합니다.

원로 · 은퇴장로 좌담회

신앙의 경륜 전하고 배우기

때 / 1999년 1월 19일(수)
장소 / 협동목사실
참석자 / 이태규 장로, 김방진 장로(이상 원로),
윤두한 장로, 하대선 장로(이상 은퇴)
진행 / 조선근 장로

조 : 교회의 어른으로 평생을 수고해 오신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좌담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유익한 조언의 말씀들로 힘과 격려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장로님들이 생각해 오신 충현교회의 정신이랄까 저력 같은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교회의 저력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났던 일은 바로 화폐개혁이 있을 당시, 성수주일을 위해서 돈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김창인 목사님의 강조와 성도들의 순종은 심지어 주일에 먼 거리에서도 걸어서 교회에 오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 : 저는 1969년에 등록을 했는데,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충현교회에 처음 와서 느낀 첫 인상이 '강렬한 보수신앙'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예배시에 성도들이 미리 와서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아서 준비했고, 예배에 늦는다거나 아이들이 떠든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김 : 맞습니다. 그 때에는 가정생활도 같은 분위기였고, 주일 준비는 토요일부터 철저하게 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강하게 강조되었었지요.

조 : 문제는 이 저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 문제는 앞장 선 우리들의 철저한 모범입니다. 새로 자라나는 세대가 선배들의 신행일치한 삶을 보아야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지요. 저는 요즈음 시대에 비해 볼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대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 저는 개인적으로 질이 양을 좀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세는 무척 커졌지만, 성도 개개인을 들여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 보편의 문제인데, 우리 교회도 환경의 변화를 이기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사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 직업의식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앞장 선 우리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깊은 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 : 저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수신앙의 재확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과 선교 등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무난할 뿐 아니라, 과거의 보수신앙의 흐름을 잘 타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잘 지켜가고 심화시켜 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 : 최근 우리 교회는 젊은 일꾼 키우기에 큰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격려나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하 :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서 신앙의 새로운 면을 가르쳐, 이들이 교회의 제반 사역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진리와 믿음' 안에서의 양육이라는 뚜렷한 원칙입니다. 자칫 양적인 팽창을 위해 세상적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하면 곤란하겠지요. 진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 : 우리 교회는 장년이 많고 청년이 별로 없어서 오래 전부터 우려된 바가 있었는데, 5부예배 신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 젊은이들을 키우되, 우리가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기보다는 충고하고 권면하는 우리들 자체가 투명하고 진리에 대하여 확고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지식과 경험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진실한 권위를 통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책임있게 세워가기 위해 '독서력' 을 키워 말씀과 더불어 좋은 경건서적들을 많이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 젊은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변치않는 진리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무로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 김창인 목사님의 '요나단과 다윗' 말씀을 듣고서 7명씩 모이는 기도 동지 모임을 구성해서 큰 힘을 얻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젊은이들에게도 평생토록 연결되는 이런 기도 동지 모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 : 지금까지 성심껏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더욱 힘있게 남은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로심방에 부쳐

예수 사랑 안에 담긴 소망

김 인 식(목사, 15교구 지도)

혹독하리만큼 매서운 날씨 가운데서 새해의 첫 주간은 시작되었다. 겨울의 진미를 보여 주는 것 같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 충현교회에서는 다른 심방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경로심방이 시작된다. 연초에 경로심방으로부터 심방을 시작하는 까닭은 새해를 맞아 교회의 어른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해 동안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가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겨울비가 함께 내리면서 유독히도 추웠던 날에 상도동 언덕을 올랐다. 경로심방을 시작하면서 첫번째 가정이 될 강완채(은퇴, 77세) 집사, 김매녀(은퇴, 75세) 권사 댁의 벨을 눌렀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손님을 반기느라 대문 앞의 삽사리가 먼저 짖어댄다. 권사님의 안내로 현관에 들어섰을 때 강집사님은 거실 탁자에 앉아 연말 연시에 찾아온 카드의 답장을 쓰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시다.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 찬송 후에, 이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것을 권면했다.

육사5기로, 육군 소장(전방00사단장)으로 전역하신 예비역 장성이신 강집사님은, 김권사님과 슬하에 3남매를 두셨는데, 모두 출가하여 인천과 잠실, 서초에 살면서 주일이면 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일꾼들이다. 자녀들이 자라고 다 떠나간 집에서 두 노부부가 살아가시는 것이 적적하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인간적으로 그럴 때도 있다고 솔직히 대답하신 강집사님 내외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신다고 고백하신다. 그래서 그런지 1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신다. 벌써 5년 전에 금혼식(결혼 50주년)을 보내고, 돌아올 회혼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부부가 다정스럽게 살아 오셨는데, 늘 드리는 기도 제목을 여쭈었더니 천국 가는 날까지 부부가(서로에게) 건강을 기도하며, 무엇보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교회에서 준비한 정성의 선물을 전달하고 강 집사님댁의 대문을 나섰을 땐 겨울비도 그쳐 있었다.

첫 아기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황인길, 홍희정 부부(중등3부 교사)

작년 한 해는 나에게도 참으로 어렵고 암울했던 시기였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에 자연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아기를 가지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마음이 좀더 준비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1~2년 후에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했었는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했다. 나의 마음 속에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평소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 거부감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잡은 부담스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때문에 아내의 임신 초기에 나의 신경이 조금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내를 힘들게 하면 혹시 아기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내가 나쁜 이야기를 하면 태교에 좋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으로 아내를 대하게 되면서 날카로운 신경은 조금씩 무뎌져 갔고 마음 속의 부담도 사라져 갔다. 아내는 구역예배와 청년1부 선교팀에서 하는 화요 일본어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심을 보였고 태아를 위해 많은 기도를 했다. 만나는 분들마다 태아와 아내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신 덕분인지 태아와 아내 모두 건강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예정일보다 4일 일찍 진통이 오기 시작했다. 진통이 시작된 12월 21일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기가 나오지 않았다. 아내의 밤을 새운 진통에도 아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러다 아내와 태아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꼬박 밤을 새워서 그런지 몸도 무척 피곤했다. 아내는 아내대로 지쳐 있었다. 22일 오전에 담당 의사가 나를 불러 태아의 머리 위치가 좋지 않아 분만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태아의 기도가 막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 수술을 해야겠노라고 했다. 담당 의사의 지시로 아내는 분만실에서 수술실로 옮겨져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 딸이었다. 아내와 아기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자연분만을 위해 임신 이후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과 아내와 아기에게 이상이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아기를 보자마자 그동안의 일이 교차되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술실에서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기를 보니 쭈글쭈글한 얼굴에 아주 작은 크기라 안타깝기까지 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흉한 몰골이었지만 내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보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생명의 신비와 함께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느끼게 된다.

아기를 낳은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아기도 신생아 티를 벗고 이제는 무척이나 귀여워졌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생명의 신비와 함께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하룻동안 쌓여 있던 피로도 말끔하게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가끔씩 눈을 찡그리기도 하고 콧구멍을 넓혔다 좁혔다 하기도 하며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하거나 트림을 할 때 또 방구를 뀔 때는 왜 그리 예쁘고 귀여운지 정말 눈에 넣고 싶을 정도이다. 이제는 키도 제법 커져서 배냇저고리 밑으로 조그맣고 앙증맞은 발가락이 부끄러운 듯 나오면 너무 귀여운 나머지 발가락에 살짝 뽀뽀를 해주기도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주심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우리 아기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좋은 친구들과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를 신앙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나와 아내도 아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기도와 수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고등부 낙도어린이 초청 수련회

고등부는 지난 해 여름 거제도로 농어촌 사역을 떠났었다. 정말 열심히 섬의 어른들과 어린이들에게 땀흘려 복음을 전했었다. 그리고 이 겨울에는 그 땀의 결실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 섬 어린이 20여명을 교회로 초청하여 4일 동안 말씀과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다.

이에 따라 거제도 어구교회 등에 다니는 20여명의 어린이들은 지난 주일(24일) 밤 9시에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 본당에서 드리는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여 새벽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 하루를 시작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 초등부의 겨울성경학교에 동참하여 연합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거제도의 사투리로 서울 학생들과 선뜻 사귐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거제도 친구들 대부분은 금방 친숙감을 가지고서 초등부에서 잘 어울렸다. 그리고 성경학교 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거나 전도훈련을 받기도 했고, 또 즐거운 영화관람의 기회도 가졌다. 또 고향에서는 좀처럼 기회가 없는 눈썰매도 탔고, 방송국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금번에 우리 교회를 찾은 거제도의 어린이 모두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쉽게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강하게 각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들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깨끗한 고백들이 가득가득 담길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장차 거제도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천국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박주영 기자)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어구교회에 다니는 총철이라고 해요.
저는 4학년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전에는 갔다가 안갔다가 하면서 어디 놀러 갈 때만 다녔어요. 그러나 이젠 그렇게 안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이지 않지만 하늘,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항상 계신다는 것 알았어요. 전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고 힘들거나 피로울 때 기도를 해서 풀고 다른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착한 총철이가 될래요. 또 전 이런 별명을 갖고 싶어요. 남을 잘 전도 해서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다리라는 별명이 갖고 싶어요. 전 하나님을 믿고 힘들면 기도를 하고 교회 열심이다니는 총철이가 될 거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구교회에 다니는 기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전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길 원해서 6시 30분에 언니 둘과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새벽예배에 가요.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기분이 어떠셨나요? 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전 우리 가족 모두 천국에 가게 하려고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제 키가 크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제가 음식을 먹고 몸도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커서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거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1999년 1월 26일
하나님을 존경하는 기들

하나님께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준혜입니다.
하나님 저 부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용돈을 모아서 두발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용돈이 잘 모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돈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군것질 때문에 잘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금 서울 충현교회에서 와 있는것 알고 계시지요? 아참 그리고 하나님 저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우리 가족 모두 오래 사는 거에요.
하나님 전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 아시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지금은 아주 즐겁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냥 재미로 다녔는데 오래 다니니 교회를 진실로 다녀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교회를 더욱 열심히 다닐 것을 하나님 약속 할께요.
하나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1월 26일 화요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준혜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겨울성경학교 이모저모

1월 25일, 26일 교육관은 시끌벅적했다. 유년부와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 또는 친구들과 함께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오밀조밀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유년부는 '예수님을 전하자'(막 16:15)는 주제로 김영기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인형극과 선교 영화를 보는 시간과 아이들이 뛰며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공동체 훈련과 선교 어와나 게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복습 게임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은 말씀 중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특징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 답을 내면 추첨하여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답 확인을 모두가 같이 하고 추첨을 할 땐 '나도 답을 맞추었는데 나는 추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로 서서 정답의 인물들로 모습을 취한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예뻤다.

초등부는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수 1:8)를 주제로 송원석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영화와 인형극을 보고 여호수아와 디모데서를 공부하였다. 아이들이 큰 흥미를 가지며 참여하였던 선교 어와나 게임도 있었다. 제2교육관을 활기로 가득차게 했던 이 공동체 훈련은 4과로 나뉘어져 모두가 풍선을 들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과를 응원하기 바빴다. 점수판을 바라보며 좀 더 열심히 응원하고 사회자의 말에 귀기울이며 승리를 꿈꾸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사랑스러웠다. 게임이 끝난 후 풍선을 터뜨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가며 뒷정리를 끝낸 아이들은 '동반 우승'의 영광 가운데 귀가할 수 있었다.

소년부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는 주제로 한승일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과 대중문화의 문제점과 그 대응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기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한 순서가 귀해 보였다. 그리고 영성 훈련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을 읽고 쓰는 말씀의 방, 주어진 제목들을 가지고 통성기도를 한 후 짝을 정해 짝 기도를 하고 대표를 정해 대표 기도를 하는 기도의 방, 다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방, 이 세 방을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하였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쓰고, 자신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하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던 아이들의 진지한 얼굴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 모두 금번 겨울 성경학교에서 배운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앞으로 천국일꾼으로 씩씩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사랑이 넘친 유·초·소 겨울성경학교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섭세하신 사랑에 감사드린다. (박주영 기자)

지체들 소식

영아부
우리도 한 분의 선교사를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영아부에서 나는 작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해요. 아기의 이름으로 드리는 작은 정성의 헌금이 모아져 한 분의 선교사를 도울 수 있어요. 선교주일을 맞아 예수님을 전하는 영아부 아기 아빠, 엄마가 되어 우리 모두 하늘나라 일꾼이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지난 주일 유년부에서는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5, 26일 이틀 동안은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주제로 제36회 유년부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웃과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크게 외치는 유년부 친구들의 작은 입술에서 굳은 결의와 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주간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어린 영혼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고 힘써주신 전도사님과 장로님, 부감님을 비롯한 70여분의 유년부 교사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 (윤숙희 통신원)

중등2부
친밀한 공동체 이루기 위한 귀한 시간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예배 후 친교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인 강남석 선생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그날 참석한 온 가족들을 즐겁게 해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또 선생님들은 99년 중등2부 목회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반목회 계획을 세움으로써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각 반이 작성한 목회계획의 다양한 특성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심순덕 통신원)

고등부
임역원수련회

1월 18일~20일까지 임역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조문찬 목사님과 조재민 전도사님의 지도로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자세를 배우고, 또 임역원들이 잘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등부 임역원들이 충현교회의 모범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최윤화 통신원)

사랑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사랑부는 11시가 예배시간이다. 찬양과 기도를 드린 다음 헌금을 드린다. 두 손으로 예쁘게 드리는 아이, 그리고 기도하고 드리는 아이, 다른 데 신경쓰고 있다가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드리는 아이 등등… 헌금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예배실이 울리면서 한 아이가 뛰어서 목사님 앞에 있는 헌금 주머니로 달려간다. 처음에는 다른 교사들이 제재를 가했지만 온 몸에 무게를 실어 막무가내로 앞으로 달려가는 그 아이를 아무도 잡지 못한다. 그 아이는 몸집이 굉장히 크다. 모든 시선은 그 아이에게로 가 있다. 그 아이는 헌금 주머니를 날쌔게 붙잡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항상 그렇듯이 하얀 봉투를 꺼내서 집어 넣는다.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드리는 자의 자세를 한번 더 생각하게끔 한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받으신다.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들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 (정예자 통신원)

7교구
복음 위해 앞장서는 한해 기원

1999년 1월 26일 화요일 저녁 6시 7교구 특별모임이 있었다. 모임 장소에 들어섰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1)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웬일일까? 약 240명의 교구일꾼과 가족이 참석하여 예수의 사랑 안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손경수 장로님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다. 찬송가 483장을 힘있게 부르고 곧이어 7교구 목사님이신 김병태 목사님의 "예수 바람 온 누리에"(빌 2:11)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연초의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 사랑하며 모이는 데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앞장설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7교구 특별모임을 은혜중에 마치고 돌아오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을 꼭 잡고 환경을 넉넉히 뛰어넘어 이 세상에서 신음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는 확신이 생겼다.

15교구
달리다굼

절망이나 고통의 극한 상황을 표현할 때 죽음을 말한다. 모든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다. 감정을 교환하고 대화할 수 있고 체온을 느끼는 생명체가 물질로 돌아가 더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대화할 수도 없는 분리의 아픔을 보고 인간들은 절규하며 통곡한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에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죄인임을 알게 된다. 한 주간 동안 세 가정이 이 분리의 아픔을 겪었다. 오랜 병고로, 연로하심으로, 또 한 가정은 갑자기 이 아픔을 겪었다. 우리나라 관습에 상가(喪家)의 조문인사는 "상사(喪事)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고통을 풀어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소망하는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예수님의 "달리다굼" 음성을 듣고 일어나 찬양하자고… (한숙정 통신원)

농어촌 전도 사역으로 뜨거운 교구

금주에는 강원도, 충청도, 경상남도 등 전국 각지로 4, 14, 17교구가 농어촌 전도대를 파송하여 사역하였습니다. 일회성 전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 지난 여름에 이어 다시 방문한 지역들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일꾼들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이시원군 카네기홀에서 연주

우리 교회 출신으로 이수철 집사(아멘 찬양대 지휘자)와 장혜숙 집사(국제교구 간사)의 아들인 이시원군이 지난 1월 12일, 미국 뉴욕에 소재한 카네기 홀에서 이스라엘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음악감독: 주빈 메타)연주회에서 세계적인 거장 이작 펄만, 핑커스 주커만과 협연했다. 이군은 현재 라과디아예술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맨하탄 음악학교 예배과정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다.

교회소식

◆ 알 림

1. 구제헌금 안내 / 오늘 I, II, III, IV, V부예배시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2. 99년 제1차 학습 · 세례식 신청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2월 7일까지 교구 담당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남녀전도회 98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 98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각 남녀전도회에서는 오늘 중으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 10:30~12:30, 15:00~16:30 장소 - 선교관 4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 금전출납부, 원장, 합계잔액시산표2장(98. 7. 1~12. 31), 통장, 증빙서철
4. 4부예배 안내위원 모집 안내 / 우리 교회 서리집사 중 4부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주일 - 예배위원회실(구내전화 214번)
5. 크로마하프 남녀신입대원 모집 / 연습 - 매주 목요일 10:00~11:00, 베다니홀
   문의 - 김옥순 집사(548-6916)
6. 만도린 신입대원 모집 / 클래식기타 연주 가능한 성도들 중 함께 봉사할 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노순옥 권사(548-6823), 이연순 집사(3463-0434)
7. 충현복지관 직원모집 / 원예실습지(농장)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 농업고 출신으로 농작물 재배 유경험자 문의 - 564-4885

◆ 모 임

1. 장로 회요새벽기도회 / 2월 2일(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2월 1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오늘 15:00-16:30, 사랑부실
4. 교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301호
5. 건축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선교관 505호
6. 기획위원회 실행위원 모임 / 오늘 15:00, 선교관 301호
7. 교정전도회 월례회 / 2월 7일(다음 주일) 주일오후기도회 후, 갈릴리홀
8.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월 4일(목) 새벽기도회 후, 실업인전도회실
9. 권사회 전체 월례회 / 오늘 15:00, 갈릴리홀
10. 권사회 제1지회 월례회 / 2월 3일(수) I 부예배 후, 사랑부실
11. 출판부 회의 / 오늘 15:30, 선교관 303호

◆ 남녀전도회

1. 에스더 3 / 2월 5일 연합구역예배 후, 노아식당

◆ 별 세

1. 배옥순 성도(김정연 집사 모친, 15교구 신림1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구재완 집사, 주순희 집사, 구기훈, 구세훈 / 강남구 삼성2동 41-5 언주빌라 103호, 전화 : 545-4214

사진 찍으세요

99년도 신임 남녀 서리집사들께서는 제직사진첩에 실릴 사진을 오늘까지 모두 찍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 2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I	II	III	IV	V	찬양 예배 (안수집사)	수요 예배 (권사) I	II
2	7	이승철	정홍식	김경철	김의철	윤명식	이성호	김운심	박효지
	14	마성락	우기진	엄필성	정하우	손동운	안석현	한영숙	장순남
	21	송기홍	이종국	강은원	이 훈	최대원	임창식	송명희	김후전
	28	송환장	노광헌	박승준	남신우	강모용	김여순 장로	심효숙	지인숙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6	윤임섭	2	루디아	박정혜(2)	151	유미희	19	청년2부		166	안준호	19	대학부	홍석규(9)
137	손진숙	2	청년2부		152	안인선	19	청년1부		167	양승주	19	대학부	임혜연(19)
138	황연숙	3	에스더	황익수(9)	153	전영진	19	청년1부	김혜영(19)	168	곽기혁	6	대학부	조병숙(6)
139	김병관	3	대학부	황익수(9)	154	정수정	19	청년1부		169	김종만	6	에바다부	
140	서정숙	4	청년1부		155	금선영	19	대학부		170	남윤상	19	에바다부	
141	최광걸	5	소망부	정병화(3)	156	최성님	3	청년2부		171	임희란	19	고등부	윤한나(13)
142	임민자	5	소망부	정병화(3)	157	최지연	19	대학부		172	제갈선	19	대학부	윤혜원(1)
143	정희경	6	루디아	윤혜란(1)	158	이승훈	16	대학부	이양숙(16)	173	손지영	19	청년1부	임선태(2)
144	윤우진	6	대학부	윤혜란(1)	159	박세연	3	대학부		174	박동민	19	청년1부	전승기(19)
145	윤자호	6	중등부	윤혜란(1)	160	이경열	4	대학부		175	김동진	17	청년2부	손성혜(17)
146	신송자	9	한 나	박윤석(8)	161	김수연	19	대학부		176	조성민	7	청년2부	
147	이옥단	9	한 나	박윤석(8)	162	김은경	19	대학부		177	문현주	19	청년1부	문희(7)
148	한남수	14	바 울	박은식(14)	163	이보담	19	대학부		178	양의수	19	청년1부	
149	박현철	16	청년2부		164	유동구	19	대학부		179	김수권	19	청년1부	신지현(6)
150	정영미	19	청년2부	김정수(6)	165	정혜영	19	대학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신혼가정부를 소개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 신혼가정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전하고 성경적인 가정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땅 위에서 인생의 모든 출발점이 되는 가정이 영적 사역의 기초가 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가정이 모두 되기를 원하는 저희 신혼가정부에서는 새내기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들을 서로 나누며 성경적인 입장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회 안내

시간 : 주일 10:50~12:30
장소 : 교육관 201호
지도 : 조칠수 목사
참석대상 : 예비 신랑 · 신부 신혼부부

집회 순서

찬양(10:50~11:10)
말씀(11:10~11:30)
교제의 시간(11:30~11:50)
성경공부(11:50~12:30)

2월 7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 · 4부예배

베이스 김대수
(임마누엘찬양대 솔로이스트)

〈찬양곡목〉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 주기도문

❖ 3 · 5부예배

목관 트리오
(벧엘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찬양곡목〉
· 나 주를 멀리 떠났다
· 복 주시고 지키시네
· 자비로운 주여

충현 중보의 창

1 1999년 한해 동안 우리 교회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소서.

2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시며, 충현의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4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99년도 전반기 충현 소석장학생들을 선발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천국일꾼을 양성하게 하소서.

5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심령이 새 힘을 얻어 한해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소서.

6 1999년 2월 3일~6일까지 있을 제2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더욱 빛나는 영혼의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7 2월 22일~24일에 진행될 제1회 목회자단기세미나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총을 얻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김재철 이승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찬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학
정혜성 박노철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김영대
■ 강도사
박인기 염현일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여전도사
정연희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김연식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영기 송원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이후찬 김병수 이종태 김윤식
김일송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평신도선교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셉